

진도, 정착·자립 '맞춤형 청년정책' 속도 낸다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활동포인트제·창업 등 확대

김희수 군수 "주거·일자리·문화복지 등 지속적 지원"

진도군이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일자리, 문화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1일 진도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청년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가 시작되고, '청년 활동 포인트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한다.

청년공공임대주택 1호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해 진도읍 교동리 일원에 총 18세대 규모로 건립 중이며, 청년과 신혼 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주거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진도군은 상반기 중에 입주 자격 기준을 마련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하반기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청년공공임대주택 2호의 건립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사전 투자심사와 실시

년 대상 워크숍과 교육, 지역 내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면 활동별로 점수(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일정 점수(포인트) 이상을 적립하면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발적인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정주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와 같은 신규 정책뿐 아니라, 그 동안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청년·신혼부부 결혼축하금'(1쌍당 300만원), 출산장려금(자녀당 1000만원 ~2000만원), 출생기본수당(1~18세, 월 20만원) 등 결혼·출산·보육 등 전 단계에 걸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창업스쿨을 운영하며, 창업 정신(마인드)과 전략·회계·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식품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시제품 개발, 자문(컨설팅), 자금(펀딩) 등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창업 성과를 창출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보완해 청년이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희수 군수는 "청년들이 진도에서 삶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문화복지로 아우르는 청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청년이 진도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영암 월출페이로 나눔 참여
군, 온돌저금통 서비스 개시

해남, 농촌유학 지역 정주형 교육정책 '결실'

지난해 초·중학생 63명 참여 학교·마을 연계 안정적 구조

영암군은 최근 지역화폐 '월출페이'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온돌저금통' 서비스를 개시했다.

온돌저금통은 휴대폰 앱 월출페이 기부 메뉴를 매개로 영암군민이 기부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이다.

앱에 올라온 11명·면·면의 도움이 필요 한 11명 이웃의 사연 보고, 영암군민이 선택해 월출페이에 있는 적립금을 나눌 수 있다.

월출페이 기부는 올해 6월까지 할 수 있고, 각 읍·면 당 목표 모금액은 100만원이다.

군은 모금액이 차면 월출페이로 각 읍·면 사연자에게 지급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비로 쓰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 수단을 월출페이로 해 이웃돕기 성금이 소상공인 매출 등 지역 내 소비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온돌저금통 방식으로 1가구를 선정해 시범 모금을 진행해 100만원을 전달했다.

복지 사각지대 밸굴을 나눔, 지역경제와 연결하며 영암형 복지 순환체계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유미경 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온돌저금통은 영암군민의 참여로 이웃을 돌보고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착한 나눔소비 모델이다. 군민의 많은 관심과 기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지난 2023년 15명 수준이던 해남군 농촌유학생 수는 지난해 6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진은 해남 농촌유학 체험 프로그램 중 떨기 따기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

농촌유학 가구 및 학생에게는 월 40만 원의 농촌유학 경비가 지원되며, 특히 해남군은 농촌유학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무상거주가 가능한 4개소를 포함해 10개소의 기숙체류시설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올해 신규사업도 확대한다. 2월부터는 농촌유학 신축 주택 거주자에게도 유학 6개월 이상 유지 시 유학경비 20만원

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산면에 기숙체류 시설 4동을 신축한다. 농촌유학 우수 학교 2개소를 육성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촌유학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변화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태도와 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농촌 생활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이 늘어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만족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와 가족이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선택이다"며 "앞으로도 가족체류시설과 경비 지원을 포함한 농촌유학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8239@gwangnam.co.kr

완도, 해조류·전복 산업 기후위기 대응

우량 종자·양식 기술 개발…AI 수산양식 시스템 구축도

완도군이 해조류와 전복 양식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다시마 생산량은 전국 대비 71%를 차지하는 38만t, 미역은 56%를 차지하는 32만t, 김은 23%에 해당하는 12만여t을 기록했다.

군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해조류 양식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김 양식의 경우 육상 체육장을 확대하고 미역과 다시마 등은 가 이식이 없는 양식 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이상 해황에도 안정적으로 해조류를 생산할 수 있는 양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완도는 전국 대비 70% 이상의 전복을 생산하는 전복 주산지이다.

전복·가우리와 광어 양식장(육상)에 '인공지능(AI) 수산양식 플랫폼'을 구축해 수질 센서와 수중 카메라를 통해 수온, 용존 산소 등 해황 환경을 측정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분석한 정보를 어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 인근 4개 시·군이 함께 'AI 기반 어장 공간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지난 2024년부터 5년간 추진 중이며, 플랫폼이 구축되면 어업인이 직접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 소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이로 사용하는 전복 양식 시 먹이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해조류 부산물을 재활용 지원사업, 전복 먹이용 해조류 저장·공급 사업, 유망 양식 품종(감태·곰팡이) 종자 공급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완도는 전국 대비 70% 이상의 전복을 생산하는 전복 주산지이다.

전복·가우리와 광어 양식장(육상)에 '인공지능(AI) 수산양식 플랫폼'을 구축해 수질 센서와 수중 카메라를 통해 수온, 용존 산소 등 해황 환경을 측정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분석한 정보를 어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 인근 4개 시·군이 함께 'AI 기반 어장 공간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지난 2024년부터 5년간 추진 중이며, 플랫폼이 구축되면 어업인이 직접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증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